

광주일보 8기 리더스아카데미 강연 - 강신주 박사 '현대인들에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랑해~ 이런 말 식상 ... 진짜는 애지중지 하는 것”



강신주 박사



지난 23일 오후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8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강신주 박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랑이든 사람이든 함부로 쓰면 떠나기 마련... 가볍게 여겨선 안돼 인생 황혼 가장 아끼는 사람 눈동자에 내 모습 비친다면 성공한 삶

“사랑해~. 이런 말 정말 너저분하죠. 진짜 사랑 '애(愛)'의 의미를 찾아가는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랑과 자유의 철학자. 강단철학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답을 찾는 철학적 소통으로 잘 알려진 강신주 박사가 지난 23일 '제8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강연했다.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강 박사는 '현대인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쳐 박수를 받았다.

그의 강연은 새로운 철학적 소통과 사유로 모든 사람이 철학자인 세상을 꿈꾸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인지 쉽지만 그 메시지는 강렬했다.

대중강연으로 올해 처음으로 광주-전남 독자를 만나는 강 박사는 “코로나19로 사랑하기도 참 힘들다”고 운을 뗀 후 사랑의 진정한 의미찾기와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강 박사는 “사랑한다는 건 뭔가를 아낀다는 것으로 애지중지(愛之重之)하고 나아가서는 자중자애(自重自愛)하는 것”이라며 “나 자신부터 아

끼고 다른 사람도 아껴서 부려야 사랑하며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스스로 몸을 아껴야하고 애지중지 사랑(자존감)할 필요가 있다”며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중하다는 것을 알게 키웠는지, 그저 연봉에 왔다갔다하는 철없는 아이로 키웠는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권세가 있고 직급이 높으면 좋아보이기 마련인데, 실상 그 자리는 타인을 아껴야 하는 자리이지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사랑이든 사람이든 함부로 쓰면 떠나기 마련이라는 것을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강 박사는 또 예전 강연 중 어떤 이가 ‘치매로 삶의 의지를 잃어가는 노모가 밋고 아쉽다’라는 질문을 했을 때 “진정 어머니를 아꼈느냐, 그저 부리기만 하지 않았느냐”고 야단치듯 되물을 기억이 있다며 “아끼면 그 사람을 부리지 않는 것인데, 거꾸로 내가 그들을 부려주고만 하는지 성찰해 볼 때”라고 말했다.

자식과 부모, 아내, 사랑하는 사람 모두를 무겁

게(소중하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에선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박사는 보다 재밌고 이해하기 쉬운 강연을 위해 예시를 들고 생각해볼 문제를 제시했다. ‘내일 오후 10시에 죽는다고 생각해봐’, ‘언제 키스를 해야하나?’ 등을 가정하며 일상 속 문제에 대한 답을 찾도록 유도했다.

그는 “아끼는 게 있으면 포기하는 법이 없다. 지금 건물 옥상 난간에 올라와 있다고 해보자. 뛰어 내리지 않는다면 분명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스스로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것이 있으면 뛰어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연의 주제로 삼은 진정한 사랑의 키워드로 ‘눈부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박사는 상대방의 눈에 내 모습이 비쳐지는 상태, 눈부처를 보는 사이가 애지중지 사랑하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눈에서, 사랑하는 이의 영롱한 눈에서, 심지어 죽음에 앞서 간병인의 얼굴에서도 이 아름다운 눈부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분명 애지중지하는 사이인데도 나도 모른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강 박사는 “마지막으로 쳐다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눈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제 ‘사랑해’라는 식상한 표현에서 탈피하고, 서로를 애지중지하는 ‘눈부처 사랑’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서로 마주할 때, 눈에서 서로 모습을 확인할 때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아낀다는 표현은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지는 서로를 애지중지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게 맞다”고 풀이했다.

철학자들의 말처럼 권세나 허세를 보지 말고 길게 보아야 하듯 인생이라는 마지막 페이지에 누군가에게서 눈부처를 볼 수 있다면 성공한 삶이라고 자부할만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박사는 “모든 관계에서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삶을 실천해 결국 가장 아끼는 사람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오는 30일 ‘인문군축학자’ 유현준 건축가를 초청, 강연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

예비 귀어진 4명, 함평 석두마을서 전남귀어귀촌센터 어촌 체험 참여



전남도와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2020년 전남어촌 탐구생활'에 참가한 도시민 예비 귀어진 4명이 지난 18일 함평 석두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돌돔양식장에 사료를 주는 체험을 하고 있다. 서울, 세종 등에서 석두마을을 찾아온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3박4일간 어촌 체험을 한 뒤 올 하반기에 예정된 사이버 귀어스몰엑스포, 어촌 한 달 살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제공>

최일 동신대 총장, 의료진에 감사 '덕분에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



동신대학교 최일 총장이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최 총장은 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함께 존경과 고마움을 전하는 수어 동작을 사진으로 담아 '#덕분에챌린지', '#덕분에캠페인', '#의료진덕분에' 등 3개의 해시태그를 붙여 대학 SNS에 게시했다.

<동신대 제공>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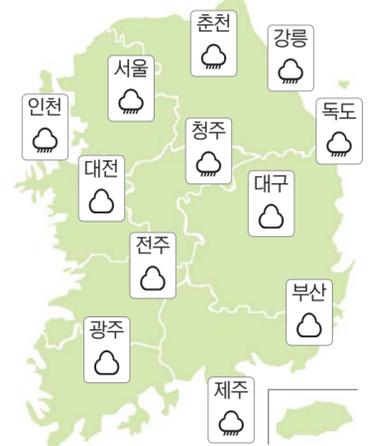
해돋이	05:19	달뜨기	08:59
해질	19:51	달짐	23:11

흐린 하늘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광주	흐림	22/26	보성	흐림	21/25
목포	흐림	21/24	순천	흐림	22/28
여수	흐림	21/25	영광	흐림	21/25
나주	흐림	21/26	진도	흐림	21/25
완도	흐림	21/25	전주	흐림	22/27
구례	흐림	22/27	군산	흐림	22/25
강진	흐림	21/26	남원	흐림	21/27
해남	흐림	21/25	흑산도	흐림	19/23
장성	흐림	21/25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1.0	0.5	
	먼바다(북)	1.0~2.0	1.0~1.5	
남해서부	앞바다	0.5~1.0	0.5	
	먼바다(서)	1.5~2.5	1.0~2.0	
	먼바다(동)	1.0~2.0	1.0~1.5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10:15 22:16	05:06 17:04
여수	05:39 17:43	--:--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경고	높음	좋음

◇ 주간 날씨

26(금)	27(토)	28(일)
☁	☁	☁
21/29	22/30	22/28
29(월)	30(화)	7/1(수)
☁	☁	☁
22/29	22/29	21/29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일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원유

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역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월·금 오후 5-9시 사랑마루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휴대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혼가정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훈련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던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

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김진례씨별세, 임재원·채천·정숙·현숙·효숙·재숙씨 모친상, 박미경·이현숙씨 시모상, 박준현·한점섭·문기진씨 방모상=발인 26일(금) 오전 10시 30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